서산의 법이 달마산에서 피어 세상을 밝혔네

㊷ 법이 상주하는 도량 미황사

달마산 미황사. 뒤로는 기암괴석이 이룬 기이한 산봉우리, 앞은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 미황사는 한 폭의 풍경화 속에 있습니다. 산 이름이 법이 상주하는 곳임을 드러내고 있으니 미황사가 담겨진 풍경화도 예사로운 그림은 아닙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의 불사로 절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절 미황사'라고 부릅니다. 풍경이 아름답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물들이 아름답고 세간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 자비가 아름다우니 '아름다운 절'이란 수식은 아무리 써먹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 아랫마을 서정리에 들어서면 울퉁불퉁 바위들이 힘차게 기운을 내뿜는 달마산 능선이 보이고 산 중턱에 미황사가 보입니다. 막돌을 정교하게 쌓은 석축은 한 층 한 층 부처님의 세계로 중생들을 인도합니다. 앞에는 '자하루(紫霞樓)' 뒤에는 '만세루(萬歲樓)'라는 현판이 달린 누각을 지나면 누구나 아! 하고 감탄사를 쏟아내게 됩니다.

단청의 흔적이라곤 한 점도 찾을 수 없이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대웅보전(보물 제947호)이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떡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면 3칸의 팔작지붕은 겹겹이 쌓아올린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데, 기둥과 공포가 백골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전하게 탈색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자의 형해(形骸)가 저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참동안 마당에 서서 산 쪽으로 몸을 향하여 대웅보전을 바라봅니다. 대웅전 뒤의 응진당(보물 제1183호) 앞에서는 산을 등지고 먼 바다를 응시합니다. 산과 바다 그 사이에 절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바다에 서 있다면 절과 산은 그저 먼발치의 풍경일 뿐일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서 있다면 절과 바다가 눈에 걸리는 경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순례자는 절 마당에 서 있습니다. 절 마당에서 보는 산은 산이 아니고 바다도 바다가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도 물도 아닌 곳에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 있을 때가지 산도 바다도 절도 이미 한 줌의 허공에 불과할 것이니 말입니다.

아름다운 절집 마당에서 어정쩡한 망상을 피우다가 문득 부도밭으로 향합니다. 요사로 쓰이는 세심당과 일심관을 지나 등산로에서 '부도전 가는 길'이란 팻말을 만납니다. 길은 오솔길, 바닥이 잘 골라진 길을 따라 500m 쯤 걷습니다. 부도밭으로 가는 동안 이 길은 그저 한적한 오솔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도밭을 둘러보고 돌아올 때는 이 오솔길이 그냥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황사 부도밭 전경.

설봉당 탑비.

미황사 부도밭은 두 곳입니다. 마당에 절의 사적비가 서 있는 부도암(浮屠庵) 옆의 남부도밭에는 21기의 부도와 5기의 탑비가 모셔져 있고 그 200m쯤 아래 숲속에 있는 서부도밭에는 6기의 부도가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부도나 탑비들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개의 부도와 탑비는 웅장하게 멋을 부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소탈합니다.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위엄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절이 피폐하면서 관리도 잘 되지 않았을 세월이 아주 오래된 느낌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벽하 설봉 연담 등 조선 중기 거장들 숨결 느껴져
'아름다운 절'에 숨겨진 수행 흔적 깨침의 길 안내

미황사 대웅보전 주춧돌에 게와 거북 등 어류들 조각이 있는데, 부도밭의 부도와 탑비의 대좌에도 그러한 어류들 조각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어류들 뿐 아니라 사슴이나 새 같은 짐승들의 조각도 중대석이나 상대석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대흥사 부도밭에서도 볼 수 있고 송광사 일주문 옆 비림(碑林)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한 숲속의 부도들이 몸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명들을 문신(文身)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도의 주인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자유를 누리며 뭇 생명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부도밭의 21기 부도 가운데 2기를 제하면 모든 부도의 탑신에 새겨진 이름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서부도밭의 부도 6기는 모두 주인의 당호(堂號)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장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피해 부도암 마루에 걸터앉습니다. 조용한 절 마루에서 <동사열전>(범해각안 지음 김윤세 옮김)을 펼쳐 봅니다. 남부도밭에 부도가 모셔진 세 분의 생애를 읽습니다.

벽하당(碧霞堂) 대우(大愚 1676~1763) 종사. 벽하당은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이씨의 태몽이 기이합니다. 푸른 빛을 띤 새들이 어깨위로 모여들고 푸른 노을이 품 안으로 내리 비치는 형상을 보고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벽하당은 새들이 구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니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던 가 봅니다.

출가하여 조연(照淵) 장로에게서 머리를 깎고 화악(華岳 1629~1707) 대사에게 경교(經敎)를 배웠으며, 환성(喚醒 1664~1729) 선사에게서 선맥을, 고암(孤鴨) 선사에게서 계율을 전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가르침을 준 4명의 스승은 모두 청허휴정 서산대사의 5세 법손들입니다. 화악 선사와 환성 선사는 대흥사 13대종사의 4번째와 6번째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벽하당은 7번째 대종사입니다. 선의 가풍을 전한 환성 선사는 "동국의 대종장은 벽하 장로일레라. 서녘 강 만리 물을 한 입에 삼키겠고녀" 라는 시로 제자를 격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미간에 백호(白毫)가 나 있어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게 여겼다는 벽하당은 입적을 맞아 담담하게 시 한 수를 썼습니다. 시를 다 쓰고 붓을 놓고 앉아 곧바로 적멸에 들었다고 합니다. 임종게를 읽습니다.

삶이란 타향살이
죽음이란 고향 가는 길
흰 구름처럼 오고 가는 속에
여여한 그 무엇 변함없어라.

조선 숙종 정월 보름날 영암에서 태어난 설봉당(雪峰堂 1678~1738)의 법명은 회정(懷淨)입니다. 대흥사 13대종사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하는 스님입니다. 어머니가 신인(神人)에게 구슬 한 알을 받는 꿈을 꾸고 잉태했다고 하며 9세에 달마사 조명(照明) 장로를 찾아가 출가했습니다. 16세에 머리를 깎고 당시 제방에 명성을 떨치던 화악문신(華岳文信)으로부터 법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법통을 이어 받은 후에도 수행에 게으르지 않고 홀로 참구하여 깨치고 그 깨친 바를 경전을 통해 점검하기를 반복하여 자재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한 번 법석을 펴면 수많은 대중들이 탄복하며 성성한 가르침을 즐겼으나 이름과 자취를 감추고 토굴 수행을 즐겼습니다. 회갑을 맞은 해 9월 7일 임종게를 짓고 다음날 적멸에 들었습니다. 임종게에 스님의 생애와 수행의 영롱한 열매가 담겼습니다.

뜬구름 자취 없이 오고
갈 때는 종적 없이 가고
구름 오가는 것 자세히 보니
다만 하나의 허공 뿐일레.

조선 후기 한국 불교를 진흥시킨 걸승으로 꼽히는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 선사는 화순에서 태어나 5세 때 이미 <천자문>을 배우는 등 남다른 총기를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숙부의 보살핌 속에 세속의 글공부에 전념하다가 18세에 나주 법천사로 출가했습니다. 이승에 오기 전부터 수행의 인연과 공덕이 컸던지 선지식들을 두루 참방하여 배웠고 스스로 참구해 깨친 경지도 높았던 스님은 당대의 10대 법사로부터 차례로 공부하여 교리에 두루 통달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엄학의 대가였던 연담 스님은 당시의 또 다른 화엄 대가인 묵암(默庵 1717~1790) 스님과 학문적 논쟁을 벌여 불교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담 스님의 화엄에 대한 견해는 '마음이 곧 만물'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의 저서 <임하록(林下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사열전>에 한 대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나 범인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그 근본 바탕은 허철영명(虛徹靈明)하며 뚜렷이 홀로 존재하는 실재이다. 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속되어 있는 것이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 공간적으로 없는 곳이 없고 시간적으로 끊임이 없는 것이다."

미황사 부도밭에서 만난 선지식들은 서산대사의 법손들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정진력으로 교학을 익혔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염불을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교를 둘로 여기지 않은 서산대사의 가풍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의발을 대흥사에 보관토록 하라고 말한 까닭을 미황사 부도밭에서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서산의 법이 달마산에서 피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푸짐한 감동이 미황사로 돌아가는 오솔길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연꽃처럼 아름다운 수행자들의 삶을 그려보게 합니다. 부도밭에서 절로 가는 길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